



함영의 밥맛 나는 세상

51 밥은 사랑-부채여사 편<2>

옹심이미역국 · 팽감에 가을이 아름답다

대학에서 철학과 불교학, 한문학까지 3전 공을 하고 있는 만학도, 부채여사에게 요즘 고민이 생겼다. 그녀가 수강 중인 과목 중에 인간사의 다양한 문젯거리를 불교적 사고관에 입각해 해결책을 모색해보는 시간이 있는데, 그녀가 맡은 과제는 한 중년여인의 고민이었다. 남편이 20대 젊은 여자와 바람이 났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었다. 평생 '결혼'이라는 단어를 꿈에도 그려본 적이 없는 '산천적 독신'인 그녀가 부채님도 관여하지 않는다는 남녀 간의 문제를 떠안게 됐으니 참으로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몇날 며칠을 고심한 끝에 부채여사가 찾은 이는 허말라야에서 12년의 고행을 마치고 돌아와 교내에서 남다른 강의를 펼치고 있는 부채도 사님이었다. 긴 머리를 짙은 묶고 사시 사철 부채를 소장하고 다니는 부채도 사님과 부채여사의 회동은 교내 근처 옹심이미역국 전문점인 '화담'(054-621-7779)에서 이뤄졌다.



부채 여사는 새알심이 들어간 옹심이미역국이 나오자 어머니에 대한 추억이 더욱 깊어졌다.

방바닥에 엉덩이를 붙이기가 무섭게 시작된 부채여사의 하소연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중에 상 위로 옹기그릇에 소담스럽게 담겨진 배추김치와 총각김치, 물김치가 올라와 메인음식이 나오기도 전에 젓가락질이 시작됐다. 3종 김치 옆에 곁들여진 매실장아찌의 정갈하고 개운한 맛도 한뭇 거들어 입맛을 더욱 돋우는 가운데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근원에 대한 본질의 답을 구하는 게 중요하지, 옹기 그릇을 논하는 건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어요. 당사자가 자기 상황을 애증

을 넘어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스스로 판단을 내리는 게 중요해요. 그러한 과정에서 대처법도 필요해요. 가령 진언을 외우거나 절을 해 감정을 가라 앉히면 자기를 보는 힘이 생기고 자기를 보면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눈이 생기거든요. 중도의 지혜를 일깨우도록 방편을 써 모든 게 상대적 견해로 일어난

김치를 물끄러미 바라보다. 팔에 대한 사랑이 유별났던 그녀의 엄마와의 추억은 옹심이미역국이 나오면서 더욱 깊어졌다. “엄마는 늘 김치를 넣고 미역을 부다 싹뜨물 붓고 곧잘 끓여주곤 했어요. 이렇게 찹쌀로 새알심을 만들어 미역국에 넣고 국간장으로 간해 마지막에 참기름 한 방울 똑 떨어뜨리면 고소한 맛이 나면서 참 맛있었는데... 이 새알심을 좀 더 크게 빻어 팔고물도 묻히고 깨도 묻히고 또 대추도 자잘하게 넣어 묻히면 결단이 되는데, 그것도 잘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보니 엄마 어깨너머로 본 기억들이 일주 나네...”

커다란 사발에 푸짐하게 담겨진 옹심이미역국을 한 대접씩 앞에 두고는 누구는 그 옛날의 추억을 회상하며, 누구는 그저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해 또 누구는 낯선 음식에 대한 호기심으로 옹심이미역국은 그렇게 각자의 벅속을 따르듯 채우고 있었다. 옹심이미역국이 바닥을 드러낼 즈음, 고혹적인 빛깔의 결명자차와 가을별에 단단하게 여문 팽감이 후식으로 나왔다. 포크로 대치돼 곁들여진 오죽(烏竹) 가지 한 개를 골라 잡아 팽감에 록 찢러 한입 베어 무니 가을이 다디달게도 되었다. 인간사 풀지 아픈 문제도, 그들을 위한 논의도, 따지고 보면 사랑의 발로인자라 새삼 아름답게 다가오고, 포크를 대용한 오죽이 팽감에 감칠맛을 더해 방편의 지혜까지 일깨우니, 아마도 이 계절이 웅숭깊게 익은 모양이다.

자유기고가, blog.naver.com/owisdom



이경제 원장의 한방으로 지키는 건강

10 사상체질

서유기로 알아본 사상체질

중국 4대 기서 중의 하나인 <서유기>에는 네 명의 등장인물이 나온다. 다혈질이고 영웅적인 손오공, 불교 경전을 구하기 위해 한결같은 지조를 지키며 서역으로 떠나는 삼장법사, 주색이라면 누구보다도 용감한 저팔계, 늘 의형제들의 분쟁을 중재하는 사오정, 바로 이 네 명이 사상체질에 하나씩 해당한다.

손오공은 태양인 손오공은 두뇌 회전이 빠르고 상황 판단이 정확하다. 남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는 것에 정의감이 발동하여 종종 무리진 일처리를 한다.

다만 급한 성격 때문에 사부인 삼장법사와 갈등이 자주 생기며 육하는 성미로 여러번 고생을 한다. 의지가 강하고 거만함에 빠지는 성향이 있다.

바로 이러한 캐릭터는 태양인에 해당한다. 손오공은 요괴들과 싸울 때 동료들에게 따로 설명을 해주지 않는다. 그저 혼자만 알고 모두 무찌르고 난후에 의기양양 잘난척 하면서 설명하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은 쉽게 해결되지 않고 삼장법사와 동료들은 배신감을 느끼고 손오공을 오해하게 된다. 바로 이러한 점이 태양인의 단점이다. 자기 세계에 빠져서 혼자서만 해결하려고 하는 영웅심이 있다.

삼장법사는 소음인 삼장법사는 자비심이 많고 마음이 선량하다. 심지어 요괴에게조차도 그러하다. 머나먼 서역에서 불경을 가져오겠다는 일심으로 고행길을 떠난다. 지나는 사람마다 꼭 들러 예복하는 성실함이 있다.

그런데 자신의 견문이 부족하여 요괴들의 교활한 술책에 늘상 속는다. 그 때마다 위험한 상황에서 도피하고 싶어 한다. 삼장법사는 겁이 많아서 요괴가 나타나면 그저 손오공만 찾는다. 그런데 일처리를 잘 하는 손오공에게 공격한다고 꾸짖기만 한다. 정말 비겁하다. 삼장법사는 소음인에 해당한다. 소음인은 자신의 주변

은 상제에 이는 반면 일처리에 서툴다. 요괴가 분장을 하고 그럴싸한 말을 하면 바로 속아버린다. 제자들을 통솔하고 주변 정리는 잘 하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상황 판단이 어두워 매번 손오공과 충돌하는데 늘 삼장법사가 잘못 판단했다.

저팔계는 태음인 모두 저팔계를 게으른 욕심쟁이로만 안다. 하지만 현실적인 목표가 있을 때 누구보다도 성실하다. 맛있는 음식이나 아름다운 여인처럼 눈에 보이는 목표가 있으면 놀랄 만큼 용감하고 적극적이다. 이를 본 손오공이 감탄할 정도이다. 저팔계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음식, 술, 여자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삼장법사의 비위를 잘 맞춰서 신임을 받는 재간이 있다.

저팔계가 바로 태음인이다. 태음인은 웅사람에게 참 잘한다. 현실적인 성취를 이루어 내고 남보다 욕심이 많다. 자신이 야키는 사람이나 물건에는 지극한 정성을 기울인다. 그래서인지 애처구나 가정적인 사람 중에 태음인이 많다.

사오정은 소양인 사오정은 별다른 개성이 없다. 늘 의형제들 간의 불화를 격정하며 별달없이 지나기를 원한다. 중용의 입장에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일처리를 좋아한다. 용감한 손오공, 지조의 삼장법사, 독심의 저팔계를 잘 조화시키기 위해 애쓴다. 손오공이 삼장법사와 다툰 때 사오정은 삼장법사 편을 들었다. 그러나 요괴가 나타나 삼장법사를 잡아간다면 고민하다가 다시 손오공을 찾아가 사정을 한다. 이 때 미안해하며 민망해하는 모습이 영락없는 소양인이다.

매스컴에서 소양인은 활발하고 말수가 많다고 이야기 하는데 이는 틀린 것이다. 대부분의 소양인은 말수가 적고 신중하며 침착하다. 오히려 지나칠 정도로 조심스럽다. 하지만 한번 말하면 객관적이면서 분명하다. (02)576-7575

비누독을 연화시키는 삼베웨이셀타올



삼베웨이셀타올 각 6,000원 → 5,400원 (10%DC)

삼베 타월의 특징

선조들의 지혜와 멋이 깃든 삼베 타월은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하며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헨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으로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맑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삼베웨이셀타올 세안법

- 1. 삼베웨이셀타올을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2.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3. 삼베사워타올을 물에 헹고 후 닦아줍니다.
* 3~4일이 경과 하면 맑아진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 피지, 각질연화효과가 있어 흰색이 좋아짐에 화장이 잘 받습니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 특허출력제품임

- 품 명 - 예고은 삼베 사워 타올
- 재 질 - 헨프사, 죽사
- 용 도 - 세안 및 전신목욕, 때밀이, 냉수야말, 스포츠타월, 등산할 때, 현직목욕사용, 건포마사지용
- 규 격 - 세안용 (30cm x 28cm)
- 제조원 - 초록삼일원 (한국산)

삼베수세미 특징

선조들의 지혜와 멋이 깃든 삼베수세미는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하며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헨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으로 식기세척기 세제를 사용하지 않고 부드러운 느낌과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으며 사용하시는 분들은 소박하고 겸손한 아름다운 마음을 지니게 됩니다.

삼베수세미의 효과

- 다이옥신 피해와 수질오염(망속에서 자연소멸)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 사용 후에는 세탁 후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건조합니다
- 품명 - 예고은 삼베 수세미
- 재질 - 헨프사, 죽사
- 용도 - 식기세척, 과일세척, 목욕천 등
- 규격 - 30cm x 30cm(소) / 30cmx50cm(대)

위생·항균·항독 삼베수세미



삼베수세미 각 4,000원 → 3,600원 (10%DC)

건포마사지용 삼베사워타올



삼베사워타올 각 15,000원 → 13,500원 (10%DC)

- 품명 - 예고은 삼베 사워 타올
- 재질 - 헨프사, 죽사
- 용도 - 세안 및 전신목욕, 때밀이, 냉수야말, 스포츠타월, 등산할 때, 현직목욕사용, 건포마사지용
- 규격 - 전신용 (90cm x 130cm)

‘건포, 습포 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바닥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등갈피 피부부를 마사지 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위생용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 좋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마사지방

- 여름에는 냉수야말, 겨울에는 건포, 습포 마사지를 권합니다.
- 냉한 체질은 건포, 습포야말이 좋고 열이 많은 사람은 냉수야말이 좋습니다. 단, 열이 많은 사람은 건포마사지를 무리하게 하지 말고,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은 냉수야말을 피합니다.
- 예민한 피부는 문지르는 것에 자극을 받아 피부염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 합니다.
- 상처나 피부질환시 문지르지 않아야합니다.



- 건포 마사지의 효과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지지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피부의 더러움과 묵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거칠어진 외상은 바리세요. 비누독이 안 쌓이니 피부가 좋아집니다.
* 죽은 세포나 피지가 매일 제거가 되어 때가 안 갑니다.
* 몸의 때는 비누 때로 인해 생깁니다. 비누 때가 얼어있으므로 때가 안 갑니다.
* 환자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현불삼 특별 할인 세트 30,000원 (세트 구매시 배송비 무료 + 추가 할인)

구성: 삼베웨이셀타올 + 삼베수세미 + 삼베사워타올 + 삼베향균비누 3개



현대불교 현불삼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www.hyunbulshop.com

돌잔치, 환갑, 칠순 등 각종 행사용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

희담석 건강용품 - 염주세트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38,000원 (희담석합장주, 염주, 염주 주머니) ⇨ 32,300원

희담석 합장주 증정 / 희담석합장주 (날개) 1만 원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무르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옵니다.

☆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희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희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과 동등검사를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선별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물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난 것입니다.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방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중요합니다

* 제품의 특징 *

-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빠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로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든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 평상시에 사용하더라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의류를 사용하여 묻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역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현불삼만의 특별한 소식!!

현불삼 판매 1위를 자랑하는 기방방석의 이경없는 성원에 보답하고자 다량주문을 하시는 분들께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 50개 이상 주문시 25%의 할인!!

